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최대 856만원 수익”

25일부터 연계 신청...1260만원 일시납입 시 일반 적금의 2.67배 수익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 시 비과세 등 지원...주거 정책과 연계도 추진

다음달 만기를 맞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자가 이번 정부 대표 청년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오는 25일 개시된다.

2년간 적금을 부여 만든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연계 가입 시 일반 적금 상품 대비 최대 2.67배에 달하는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울시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 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희망적금 가입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축적

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올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을 일시에 매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은 다음 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분포돼 있는데, 만기 수령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연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 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 수령금 전액

(최대 약 1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일시 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예를 들어 일시 납입금 1000만원을 월 설정금액 50만원의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시 20개월(1000만원·50만원) 간 매달 적금액이 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60개월(5년)이기 때문에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20개월)이 종료된 이후 남은 40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신규 납입하면 되는 구조다.

일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기여금은 월 설정금액과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르며, 월 한도는 2만1000~2만4000원 수준이다.

금융위 추산 결과, 청년도약계좌와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들은 일시 납부 조건 및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은 뒤 다음 달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혼인, 출산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전 과세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신설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는 방안 등 주거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수령,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연계 납입에 이르는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수령금이 청년의 추가 자산 형성, 주거, 창업, 교육 등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국세청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장 방문



중기·영세업자 등 납부기한 연장

양동구(사진 왼쪽)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8일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전주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했다.

양 청장은 신고 진행상황을 살피고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신고안내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

며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문 납세자 한 분 한 분이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업자 12만4000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오는 3월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산단공 광주본부, 빗그린산단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는 18일 빗그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빗그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업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광주산학융합원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빗그린산단 입주기업과 지역구 국회의원 간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기

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접수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환경정비 실시 ▲출퇴근길 교통 인프라 확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입주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황상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도약 2024! 경제사업 조기추진 결의대회

영농현장 일손 돕기도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18일 나주시 남평읍의 시설원예농장을 찾아 '도약 2024! 전남농협 경제사업 조기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결의대회에는 박종탁 본부장과, 편지형 경제사업부 부본부장, 신경훈 지부장(농협나주시지부), 신광성 조합장(남평농협) 등 전남농협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임직원들은 농축협의 경쟁력을 강화를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다짐했다.

결의 이후에는 일손이 부족한 영농현장에서 농자재 정리와 수확 후 고춧대 제거작업 등 일손 돕기를 이어갔다.

전남농협은 2024년 경제사업 핵심추진 과제로 ▲수급안정사업 확대 ▲생산유통통합조직 승인



▲쌀 품질 및 마케팅 강화 ▲한우개량 기반 조성 ▲친환경농산물 판매 확대를 선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탁 본부장은 “올해 전남농협은 농축협의 판

매농협 구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핵심역량을 집중해 '함께하는 100년 농촌'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월 셋째 주 광주·전남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동반 하락

광주 아파트값 5주 연속 하락세 광주 0.02%·전남 0.04% 하락

광주와 전남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1월 셋째 주(지난 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아파트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2%, 전남은 0.04% 하락했다.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동구와 광산구가 0.01% 상승했지만, 남구가 -0.1%로 크게 떨어졌고 서구(-0.05%)와 북구(-0.01%)도 하락하면서 -0.02%를 기록했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셋째 주

부터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는 12월 셋째 주 -0.02%, 넷째 주 -0.01%, 1월 첫째 주 -0.04%, 1월 둘째 주 -0.03%를 기록한 바 있다.

광주와 전남의 전세가격은 각각 0.02%, 0.01%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지난주(-0.05%)에 비해 하락 폭은 다소 줄었지만, 작년 11월 마지막 주 이후 지속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서울은 매매 가격이 각각 0.06%, 0.04%로 내리면서 전주와 같은 하락률을 유지했고, 지방은 하락 폭이 -0.04%에서 -

0.03%로 축소됐다. 전셋값은 상승 기조를 이어간 가운데 지방 전셋값은 하락 전환했다.

광주 전남과 달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2% 올라 26주 연속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0.05%→-0.05%)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서울(0.08%→-0.07%)은 상승 폭이 축소된 반면 지방(0.00%→-0.01%)은 하락 전환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이은이 | 조선의
퍼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